

EXPERT KNOW- HOW

네팔 줌솜은 지금 ON-AIR 중? 줌솜에 FM 라디오 방송국을 지어라!

+ 박대안 MBC TV 중계부 차장대우



네팔 줌솜에 MBC 라디오 방송국 만들기 프로젝트

MBC는 네팔 줌솜(Jomsom) 마을에 KOICA(한국국제협력단)와 LG패션 라푸마에서 후원을 받아 '세상에서 가장 높은 방송국'을 기획하여 추진하던 중 한 계점을 발견하여 기획 자체를 '세상에서 가장 아름다운 방송국'이라고 바꾸어 추진을 하게 되었다. 설계는 한국 논현동 교보타워 사거리의 어반하이프(Urban Hive)를 설계한 아르키움에서 맡았고, 시공은 삼부건설(네팔지사)에서 담당하여 건물을 짓고 있었다.



Google Map으로 찾아본 줌솜의 위치, A 지점

줌솜으로 가기 위해서는 수도 카트만두로 먼저 가서 '포카라'라는 곳에서 비행기를 타고 줌솜으로 가면 된다. 줌솜은 해발 2,800M에 위치한 안나푸르나의 한 마을로 한국에도 잘 알려진 안나푸르나 트레킹을 위한 여행객들이 쉬어가는 곳이기도 하다. 묵티나트로 가는 유일한 통로이고 일본, 중국, 인도 유럽 사람들이 많이 지나는 길목에 위치해 있으며 작은 마을이지만 25인승 정도 되는 비행기가 뜨고 내릴 수 있는 비행장이 있다.

묵티나트는 수도 카트만두의 파슈파티나트와 함께 힌두교 신자들의 2대 성지로 꼽히는 장소로 줌솜에서 차로 2시간 정도 가면 도착할 수 있는 곳이다. 줌솜은 롯지(숙소)들이 많이 있다. 눈앞에 Nilgiri 7,061M이 바로 보이고 동네에서 바로 옆에 보이는 앞동산들은 5,000M, 눈 좀 쌓였다 싶으면 7,000M이다. 7,000M 산들도 2,000개가 넘어서 이름 없는 산들이 많단다. 바람이 워낙 강하고 많은 고지대로 시야에 의존해 운전을 하기 때문에 구름이 많으면 비행기가 뜨지 못하는 일이 많으며 바람의 영향으로 새벽 6시부터 오전 중에만 비행기 착륙이 가능한 지역이다. 비행장은 산 사이의 계곡에 위치하고 바람이 강하고 활주로도 짧아서 최근 2년 사이에 4번의 인명 사고가 있었다. 6개월에 한 번씩 사고가 난 것이다.



비행장 한쪽에 있던 비행기 잔해

도착을 하니 부서진 비행기의 잔해가 비행장 주변 여기저기에 남아 있었다. 비행기 타는 게 무서워서 30분이면 도착하는 좀숨을 12시간 걸리는 육로로 들어온 사람도 있다. 좀숨은 길이 끊기거나 비행기가 뜨지 않으면 공사장 물건이나 필요 기계와 부품이 들어오기 힘들다. 일을 하다 보니 네팔 오지인 좀숨에 라디오 방송국을 만들기로 한 것 자체가 그 후에 일어날 험난한 일들이 예정된 것이라는 생각이 들었다. 부품을 주문하면 규격에 맞는 것을 받기 위해 몇 번이나 물건이 다시 오기를 기다려야 한다. 코이카 사업부 부장, 스튜디오 설계한 기술담당도 바뀌고 해서 처음 계획한 것을 이해하고 일을 해야 하는 어려움도 있고, 처음 기획한 사람과 생각이 다르다 보니 추후 변경도 쉽지 않아 일하는데 어려움이 있었다.

네팔 도착하자마자 개국식 연기

필자랑 MBC의 코이카 담당 부장, 라디오 PD, VJ 4명이 인천에서 비행기를 타고 네팔의 수도 카트만두에 도착할 때부터 문제가 터졌다. 6월 27일 개국식에 맞춰 네팔에 들어갔는데, 도착하자마자 들은 얘기는 개국식 연기. 폭우로 길이 끊겨서 자체가 수급이 안 되서 개국식 날까지 설치가 불가능하게 됐다는 얘기를 들었으나 담당 부장은 현재 상황파악이 힘들니 일단 좀숨으로 들어갈 수 있으면 일단 가보자는 판단을 했다.



폭우로 끊긴 길



폭우로 잘린 다리

근데, 카트만두에서 포카라 가는 비행기도 결항이다. 다음날 다행히 포카라행 비행기가 났다. 하지만, 포카라에서 좀숨 들어가는 비행기도 결항이다. 포카라 옛 담당부장이 결국 조기 귀국을 결정한다. 필자.만.빼고.



공사장의 어린이들



공사장에서 일하는 사람들(아날 양을 잡았다)

필자는 들어가서 좀숨의 시설 설치를 도와주는 쪽으로 결정이 났다. 필자는 그때까지도 좀숨이란 곳에서 지루하고 끝이 날 수 없는 작업이 기다리고 있다는 것을 몰랐다. 좀숨 라디오 방송국은 처음에는 라디오 기술부에서 참여해서 설치와 방송 제작을 하기로 했으나 6월로 개국식을 미루는 바람에 라디오 기

술부 인원부족으로 TV 중계부에서 방송국 설치와 제작에 참여하기로 바뀌었다. 설치는 선배가 하고, 필자는 라디오 방송을 제작하는 팀에 속했는데, 건축이 예정대로 되지 않으니 필자까지 설치에 지원을 하기 위해 1주일 일찍 들어가는 것으로 일정이 변경이 되었다. 하지만, 기술팀이 방송시설을 설치 후 철수할 때까지도 방송국 건물이 완성되지 못했으니, 대충 앞으로의 얘기가 대충 짐작이 가시려나?



기존 줌숨 라디오 방송국



룻지에서 테스트 중

줌숨 방송국은 룻지?

우리가 짓고 있는 방송국의 건물이 공사 중이라 룻지에 방을 빌려 방송 장비를 연결하여 테스트를 하고 있었다. 전기가 불안전하니 프로그램 설치 중 전기가 나가면 컴퓨터만 손상될 수 있어 프로그램 설치도 어렵고, 오디오 콘솔은 220V 고정 전압인데 줌숨은 140V까지 전압이 떨어지니 오작동을 한다. 첫 번째의 시련은 멀티 녹음기 피라믹스 설치였다. 원래는 한국에서 완전히 테스트 후 들어와야 하는데 현지 경제를 살린다는 취지 때문에 현지에서 구매를 추진했으나, 결국 현지에서는 우리가 원하는 사양을 구할 수 없어서 한국의 업체를 통해 구매했다. 전기가 불안해서 조심조심 하루 종일 수십 번은 포맷하고 다시 깔면서 이것저것 해봤지만 결국 오디오카드와 피시의 궁합이 맞지

않는 것으로 자체결론을 내고 다른 오디오카드로 대체하니 제대로 작동했다. 스튜디오에는 물건이 들어갈 수 없으니 계속 공사진행팀에 “언제쯤 장비 들어갈 수 있나요?”라고 물으면, 대답은 항상 2일 뒤라고 한다. 현장 공사팀도 힘든 것이 줌숨에는 물건들이 없다. 송신탑을 만드는데 노끈이 없어서 3일 동안 작업이 진전되지 않으니 다른 물건들은 오죽할까. 하지만, 우리 기술팀도 장비가 빨리 들어가야 하기에 물어볼 때마다 서로 스트레스다. 출국 2일 전에 스튜디오 정리와 UPS 전원이 들어왔다. 스튜디오도 설계단계에서 고려되지 않아 밖의 소음이 들릴 정도로 방음이 되지 않았고, 습기와 먼지가 많아 기계들이 격정되었다. 스튜디오의 테이블은 돌판이었다. 나름대로 운치는 있어 보여 나름 좋았는데, 스튜디오로 옮길 때 사람들 여럿이서 조금씩 굴려서 큰 돌판을 스튜디오에 넣었다. 구석기시대로 다시 돌아간 기분이었다.



스튜디오 테이블을 사람들이 옮기는 중

코이카? 아날로그? 디지털?

‘코이카의 꿈’이란 MBC 프로그램을 듣고 ‘코이카가 뭐지’라고 궁금증을 가진 사람은 많지 않을 듯하다. 필자도 아무 생각이 없다가 네팔가서 KOICA가 정부 외교통상부 산하 기관인 것을 알게 되었다. 즉, KOICA에서 근무하는 사람들은 공무원인 셈이다. 우리가 머무르는 동안 KOICA에서 사찰(?)을 나왔을 때 코이카에 대해 설명을 해주고 정년이 65세란 얘기에 다들 부러워했었다.



현지 아나운서 2명

필자가 현지 줌송 방송국을 보러 갔을 때 두 명이 방송을 하고 있었고 이 두 명이 PD, 엔지니어, 작가 아나운서 역할을 모두 하였다. 주로 오전 9시부터 11시까지 2시간 생방송을 한다고 한다. 아침 갔을 때가 생방송 중이었다. 기존의 기기들을 새로운 줌송 라디오 방송국으로 옮겨야 해서 선들을 살피기 위해 컴퓨터에 연결된 것을 잠시 뽑아도 되느냐고 물었는데 O.K 한다. 그래도, 방송 중이라 몇 번을 확인 후 뽑았는데, 그거 방송 나가는 거란다. 어쨌든, 원위치하기 위해서 만지다가 모니터 전원을 건드려 모니터가 꺼졌다. 근데, 급한 건 나쁜 둘 다 그냥 웃으며 대답하면서 엉뚱한 것들만 건드린다. 거기 있는 방송시설에 대해서도 잘 모르고 영어도 안 통해서 방송 끝날 때까지 기다렸다 일을 마치고 왔다. 교육이 필요하다는 판단에 다음날 두 사람을 불렀다. 먼저 콘솔을 설명했다. “이것이 Digital 콘솔입니다. Digital이 뭔지는 들어봤죠?” 표정이 모르는 눈치다. 발음이 달라서 그런가하고 종이에 영어로 썼는데도 모른다. 말이라도 통하면 어떻게라도 해볼 텐데 아날로그, 디지털도 모르는 사람들을 어떻게 교육할지 난감백배, 걱정이 태산이었다. 하지만, 교육은 해야 하니 설명을 조금 하다 어려워하는 얼굴이면 저장된 프리셋 값을 불러내는 리콜버튼을 누르라고 연신 “돈 워리, 리콜”만 연신 이야기해줬다. 지금 잘 다루고 있는지 궁금하다.



마을에서 바라본 줌송 방송국



송신탑 건설 중

전기, 끊기는게 뭐가 대수라고 그래도 줌송은 행복하다.

네팔에서 돌아온 후, 한국에서 전기 때문에 뉴스가 시끌시끌했다. ‘관심’, ‘주의’ 단계 등. 사건이 터질 때마다 한국 국민들은 뉴스를 보며 많은 공부를 하게 된다. 황우석 사건 때도, 광우병 사건 때도 그랬던 것 같다. 이번 여름 전기로 난리칠 때는 낮에 집에서 에어컨 틀면 매국노 소리 들을 분위기였다. 줌송은 하루에도 몇 번씩 전기가 나간다. 폭우가 내릴 땐 며칠 전기가 안 들어 올 때도 있다. 그 사람들은 그냥 그러려니 한다. 전기가 나가면 자연스럽게 배터리 전등을 켜다. 전기가 장시간 나갔을 때를 대비해서 평소에 핸드폰과 노트북 배터리는 충전해야 한다. 신기했던 건 줌송에도 와이파이기가 된다. 와이파이 안테나도 전기가 필요하기 때문에, 저녁에 숙소에서 다들 열심히 카톡도 하고 인터넷 검색도 하고 그러다 전기가 나가면 다들 먼 산만 쳐다본다. 그러다 누구 하나 맥주 얘기를 하면 모여 두런두런 이야기하며 회사 얘기들로 시간을 보낸다.



실습 중인 현지인들

근데, 맥주가 우리나라 돈으로 5,000원 정도 하는데, 현장 공사장에서 일하는 인부들의 하루 일당이 맥주 1병 값이다. 네팔의 화이트 칼라의 평균수입이 한화 30만 원 정도, 육체 노동자의 하루 일당이 한화 5,000원 정도 한다. 공사장에 일하는 사람들도 여러 곳에서 온 사람들인데, 그 돈으로 숙소에서 잘 수도 없어서 공사현장에서 숙식을 해결한다. 아이들도 그 공사현장에서 같이 지낸다. 한국사람은 일이 진척되지 않으면 큰소리가 나고 조금한테 네팔 사람들은 별 스트레스 받지 않고 걱정도 없고 행복해 보인다.

평온한 곳에서 이방인으로 거기에서 느끼고 새로운 세상을 3주 동안 보며 내가 사는 곳을 한 번 더 돌아보는 계기가 된 것 같았다. 지금 줌송 라디오 방송국 개국을 위해 작업을 하고 있다는 소식을 들었다. 잘 마무리되어 MBC의 손길이 들어간 줌송 라디오 방송국의 전파가 네팔 사람들에게 많은 도움이 되었으면 하는 바람을 가져본다.